

## 자활보호가구의 자활보호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와 탈피율에 관한 실증적인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생존표 분석을 이용한 접근

강 철 희\*

- I. 서론
- II. 빈곤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와 탈피기간 및 탈피 추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 III. 연구방법
- IV. 자료분석의 결과
- V. 결론과 함의

### I. 서론

빈곤의 문제는 사회복지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문제중의 하나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한 시대, 사회의 구분을 넘어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숙제로서 남겨져 왔고, 그렇기 때문에 빈곤은 빈곤이라는 현상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또한 빈곤을 타파하기 위한 정책 개발의 측면에서 사회복지 연구자뿐만 아니라 빈곤정책 수립자들에게 중요한 연구과제가 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저소득층의 빈곤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이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점차 소비적이고 미봉적인 구호를 지양하고, 보다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 가구의 자립·자활을 위한 정책 개발에 주안점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방향 전환과 보조를 같이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빈곤정책의 기초로서 기능해야 하는 생활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실증적 연구, 특히 이들의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자활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진했었다고 볼 수 있다. 조홍식<sup>1)</sup>이 그의 논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빈곤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빈곤의 현황, 결과 및 원인 연구 차원에서 이루어져 한정된 차원에서 정책이나 프로그램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로서는 활용될 수 있으나 실제적이고 포괄적인 빈곤 정책 개발을 위해 활용되어지는 데는 많은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의 빈곤 탈피와 관련된 빈곤 정책의 보완과 개발을 위해서는 종적인(longitudinal) 성격을 갖고 있는 자료들(cohort 자료나 panel 자료)의 축적과 이를 기초로한 연구들이 필요한데 현재에는 이러한 연구가 거의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자활보호대상가구를 중심으로 그들의 '자활보호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를 예측하는 요인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 조사를 통해 '자활보호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여부'와 관련된 특성을 밝혀려는 노력은 자활 정책의 평가와 개선 모색에 제한적이거나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와 아울러서 연구의 초점을 자활보호 대상가구의 수급 (잔류) 기간에 기초한 탈피율에 두고, 이 탈피율이 보여주는 특성을 몇 가지 중요 요인별로 조사하여 이 요인들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프로그램 탈피율의 역동적 모습을 보이는 노력도 자활 프로그램의 평가와 연구 방향 제시 등 여러 측면에서 함의하는 바가 있으리라고 본다.

본 연구는 199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추적조사의 자료를 재분석하여 위에서 언급한 자활보호 탈피여부와 탈피율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2차 자료 분석은 1차 연구에서 수집되어진 변수와 정보만을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의 국내 빈곤 프로그램 연구에서는 다루어진 바 없는 빈곤 탈피 여부를 예측하는 요인과 탈피율 추이에 대해서 기존의 국내 빈곤 연구에서는 활용되지 않았던 분석 방법(생존분석 중 생명표 분석)을 활용하여 그 특징들을 밝혀보는 점에서 향후 이 방향의 후속 연구에도 기여하는 바가 많으리라고 생각한다.

1) 조홍식, "한국 도시빈민 연구의 현황과 사회복지학적 과제", 『사회복지연구』, 1, 1989, pp. 67-91.

## II. 빈곤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와 탈피기간 및 탈피 추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의 목적은 자활보호 대상자들의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 여부를 예측하는 요인들과 탈피율 추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 연구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빈곤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 및 탈피 기간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정리하여 이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빈곤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에 대한 국내의 연구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sup>2)</sup>가 있는데 이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는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동일 자료 및 기타 자료들을 기초로 자활보호 프로그램의 효과를 조사한 것이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이 연구는 자활보호대상자를 위해 활용되는 교육보호, 직업훈련, 그리고 생업자금융자에 대해 각 프로그램 별로 그 효과를 분석하면서 앞으로의 정책 과제를 논하는 연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는 프로그램 탈피와 관련된 다양한 역동성에 초점이 맞춰진 연구라고는 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빈곤 프로그램 탈피의 역동성을 보는 데는 보통 탈피여부와 관련된 추정요인들, 탈피 기간 등을 보는 데 반해 보사연의 위 연구는 각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실제적으로 자활을 꾀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의 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견해 등 다양한 자료를 기초로 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중 자활효과가 큰 순서는 교육보호, 생업자금융자, 직업훈련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빈곤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국내 학계에서는 거의 전무한 형편임에 반해 상당한 국가 예산을 빈곤 퇴치에 사용하고 있는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이 주제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어져 왔다. 특히 가장 논란이 많은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빈곤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와 탈피까지의 기간 그리고 이를 예측하는 변수들에 관한 실증적인 조사 연구가 상당히 오랜 기간 축적되어져 왔고 이러한 연구 발견들이 정책 개발에 많은 함의를 제공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문화와 경제 그리고 복지에 대한 국가의 우선 순위 배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와는 큰 차이를 갖는 환경에서 수행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우리에게서 제한된 시사점을 지닐 수도 있다. 그렇지만 연구 결과들이 우리나라에서의 빈곤탈피 혹은 빈곤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와 관련된 현상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와 설명을 가능케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서 행해진 선행연구의 고찰은 중요한

2) 노인철 외 6인, 『저소득층 실태변화와 정책과제- 자활지원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선행연구의 고찰은 연구 내용뿐만 아니라 연구방법과 자료분석 방법 등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해 앞으로 이 분야에서의 국내 연구에도 많은 것을 함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다음에서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빈곤 기간과 빈곤 탈피, 그리고 관련된 중요 변수별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빈곤기간과 빈곤탈피

빈곤 기간과 빈곤 탈피에 대한 거의 모든 연구들은 빈곤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빈곤 프로그램에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동안 머물면서 수혜를 받는다고 보고한다. 캘리포니아 주의 AFDC 프로그램의 수혜자들 중 1965년에 처음으로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되었던 440명의 가구주들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서베이를 한 Boskin과 Nold의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확증하고 있다.<sup>3)</sup>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5년 동안 연속해서 프로그램의 수혜자였던 가구주의 비중은 17%밖에 되지 않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짧은 기간동안만 프로그램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프로그램에서 탈피했다가 다시 수혜자로 돌아오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편 Rydell, Palmeria, Blasis, Brown은 뉴욕 시의 AFDC와 AFDC-U(실직된 아버지)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빈곤 프로그램 탈피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1967년부터 1973년까지 종적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자들 중 특정 기간 이상을 프로그램으로부터 탈피하는 가구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했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AFDC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수혜하게 된 가구들(an opening cohort)보다는 연구 기간 중의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조사된 수혜 가구들(a point-in-time cohort)이 상당히 더 긴 기간동안 프로그램에 머물렀다<sup>4)</sup>는 것이다. 즉, 프로그램의 수혜를 시작한 가구들의 대부분은 3년 이상 연속적으로 프로그램에 머무는 장기 수혜자가 아닌 반면, 후자 집단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장기 수혜자라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는 이유는 장기 수혜자들이 지속적으로 추적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이들의 연구는, 프로그램 수혜를 시작하는 대부분의 가구들은 프로그램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탈피하게 되고 단지 소수만이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남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프로그램 탈피를 연구하게 되면 장기 수혜자들의 추적된 비중이 전체 프로그램 수혜자들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이 비중에 의해 탈피 비율이 훨씬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연구 대상에 따라서 빈곤

3) Michael J. Boskin and Frederick C. Nold, "A Markov Model of Turnover in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Journal of Human Resources*, 10, 1975, pp. 467-81.

4) Peter C. Rydell, Thelma Palmeria, Gerald Blasis, and Dan Brown, *Welfare Caseload Dynamics in New York City*, New York: Rand Institute, 1974.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 비중이 어떻게 그리고 왜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설명해 준다.

Hutchens는 미시건 대학교의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의 자료를 기초로 AFDC 프로그램으로부터의 수혜와 탈피의 결정요인에 대해서 미국의 20개 주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sup>5)</sup> 그도 역시, 1970년에 AFDC 프로그램의 수혜자였던 사람들 중 28% 정도가 그 다음해에 프로그램으로부터 탈피하였음을 보고하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빈곤 가구들이 단기간에 탈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Plotnick<sup>6)</sup>도 같은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는 Denver Income Maintenance Experiment의 자료를 통해 1971년 1월부터 1974년 12월까지의 기간동안 AFDC 프로그램을 수혜한 여성 가구주들을 대상으로 종적 자료를 수집해 Event History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탈피 현상을 고찰했다. 연구 결과는 위에서 언급한 다른 연구의 결과들과 같다. 즉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 처음으로 AFDC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된 여성 가구주의 절반은 21개월만에 프로그램으로부터 탈피하는 반면, 90%의 수혜자가 탈피하는 데는 71개월이 걸렸다는 것이다. 결국 대부분의 AFDC 프로그램 대상자들이 프로그램에 머무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Rein과 Rainwater도 같은 주제로 연구를 했는데, 1967년부터 1973년까지 7년의 조사 기간 중 한 번 이상 공적 부조 프로그램에 의존하였던 여성 가구주들을 대상으로 했다. 그들의 연구는, 대상 가구들 중에는 공적 부조 프로그램에 반영구적으로 의존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수혜를 받는 여성 가구주들의 대부분은 그리 오랜 시간을 공적 부조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sup>7)</sup>. 즉, 연구 대상자들 중의 38.3%가 4년에서 7년까지 장기간 프로그램에 머물러 있었고 27.9%가 2년에서 3년까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동안 프로그램에 머물고 있었으며, 그 나머지 33.9%는 단지 1년내의 기간동안만 프로그램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Bane과 Ellwood는, 1968년부터 1980년까지의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자료를 기초로 빈곤 기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어떤 요인들이 사람들을 빈곤하게 하며 빈곤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하는가, 그리고 빈곤을 탈피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를 조사했는데, 그들 역시 앞서 말한 연구들과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짧은 기간 내에 빈곤으로부터 탈피하게

5) Robert Hutchens, "Entry and Exit Transitions in a Government Transfer Program: The Case of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Journal of Human Resources*, 16, 1981, pp. 217-37.

6) Robert D. Plotnick, "Turnover in the AFDC population: An Event History Analysis," *Journal of Human Resource*, 18, 1983, pp.65-81.

7) Martin Rein and Lee Rainwater, "Patterns of Welfare Use," *Social Service Review*, 52, 1978, pp. 511-534.

되며 빈곤의 상태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있을수록 빈곤의 상태로부터 탈피하기가 더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sup>8)</sup> 다시 말해서 빈곤 상태의 첫 해에 빈곤 상태로부터 탈피하게 될 확률은 0.445이지만 4년차에는 0.21로 떨어지고 8년차에는 0.07로서 점차 빈곤에서 탈피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로서는 빈곤한 상태 자체가 상황을 점차 더욱 어렵게 하는 것, 즉 빈곤한 상황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게 점차 어려워진다는 것과 빈곤의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대상 인구들 중에 장기 빈곤자들이 누적적으로 축적되는 것을 지적한다. 빈곤의 상태에 머무는 기간에 대한 이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빈곤의 상태를 처음으로 겪는 사람들의 44%가 1년 미만의 기간동안 빈곤 상태에 머무르고 3년 미만의 기간동안 머무르는 경우가 70.1%이며, 12%만이 9년 이상을 빈곤 상태에 머문다고 한다. 그러나 만약 어느 한 시점에 빈곤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는 그들의 51.5%가 9년 이상 빈곤 상태에 머문다고 보고하는데, 이는 장기 빈곤자들의 누적적인 축적이 갖는 문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Rank는 Wisconsin주의 Computer Reporting Network 시스템에 의한 자료를 활용하여 AFDC, Food Stamp 그리고 Medicaid와 같은 공적 부조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가구들 중 2,796가구를 선정, 1980년부터 1983년까지 이들 가구들이 빈곤 프로그램으로부터 탈피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얼마나 되고 또한 탈피의 특징이 가구의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를 조사했는데<sup>9)</sup> 그의 연구도 역시 빈곤 프로그램에 오래 머무는 가정일수록 프로그램으로부터 탈피할 가능성이 적어짐을 보고한다. 즉 빈곤 탈피의 비율이 6개월과 12개월 그리고 18개월까지는 상대적으로 높아지다가 서서히 완만해 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장기 빈곤에 접하는 가구들의 탈빈곤 비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1968년부터 1989년까지의 PSID 자료를 기초로 AFDC의 수당 수준이 여성가구주들의 빈곤 탈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조사한 Butler<sup>10)</sup>도 위에서 언급한 연구들의 결과처럼 수당의 수준에 상관없이 빈곤에 대한 두 가지 기준(AFDC 수당을 포함한 빈곤 기준과 제외한 빈곤 기준) 모두에서 빈곤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빈곤 탈피가 어렵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고한다. 그녀의 연구는 프로그램에 머문 기간 1년차와 5년차에는 빈곤 탈피의 가능성에 있어서 몇 배의 차이가 예측됨을 보여준다.

8) Mary Jo Bane, David T. Ellwood, "Slipping into and Out of Poverty: the Dynamics of Spells," *Journal of Human Resources*, 21, 1986, pp. 1-23.

9) Mark R. Rank, "Exiting from Welfare: A Life-Table Analysis," *Social Service Review*, 1995, pp. 358-376.

10) Amy C. Butler, "The Effect of Welfare Benefit Levels on Poverty among Single-Parent Families," *Social Problems*, 3(1), 1996, pp. 94-115.

## 빈곤기간과 빈곤탈피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

빈곤 기간과 빈곤 탈피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동일한 발견을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각기 다른 발견을 보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아마도 빈곤에 대한 정의, 연구 대상의 차이, 연구 기간의 차이 그리고 분석 방법의 차이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빈곤 기간과 빈곤 탈피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들을 연구자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Boskin과 Nold의 연구<sup>11)</sup>는 최저 임금 수준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프로그램으로부터 탈피할 가능성이 훨씬 낮고 탈피하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다시 프로그램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으며 프로그램에 장기간 동안 머무를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는데, 이는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의 확보가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에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Hutchens의 연구<sup>12)</sup>는 소득이 없을 때를 기준으로 프로그램에서 지급하는 수당의 수준과 시장에서의 시간당 임금의 수준, 그리고 가구주의 나이와 지역적인 차이가 프로그램 탈피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고한다. 나이 요인에 대한 Hutchens의 추론은 자녀의 성장으로 인한 가구주의 노동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지역적인 차이 요인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제도적인 요인들(공적 부조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된 지역의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는 특히 후자 요인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편 그의 연구는 자녀의 수, 교육의 정도 그리고 노동을 제한하는 장애의 정도 등은 프로그램 탈피 여부에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아님을 보고하고 있다. Plotnick의 연구<sup>13)</sup>는 나이의 증가와 임금 수준의 상승은 AFDC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자가 되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AFDC 프로그램의 수당 증가는 AFDC의 수혜 대상자가 되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고한다. 아울러 프로그램 탈피에 있어서는 가구주의 나이(+)와 프로그램 수당(-)이 각기 반대되는 방향에서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한다고 한다. 또한 교육이나 장애의 정도 그리고 AFDC 프로그램 이외의 소득은 프로그램 탈피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보고하면서 Hutchens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빈곤의 상태에서 탈피하게 되는 요인들에 대해서 Bane과 Ellwood<sup>14)</sup>는 가구주의 수입 증가가, 모자 가정의 경우에는 여성가구주의 결혼, 배우자와 다른 가족 구성원의 수입 등이 중요한 영향을 끼침을 보고한다. 가구주에 의한 것이든, 배우자에 의한 것이든,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에 의한 것이든 이들에 의한 수입의 증가가 빈곤 탈피의 75%를 설명한다는 것이다. 결국, Bane과 Ellwood는 대부분의 빈곤 가

11) Boskin과 Nold, 전게서.

12) Hutchens, 전게서.

13) Plotnick, 전게서.

14) Bane과 Ellwood, 전게서.

정이 빈곤에서 탈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가족 구성원의 수입 증대임을 강조한다. 한편 Rank의 연구<sup>15)</sup>는 빈곤 탈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가구 구성의 차이를 말하고 있다.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추출된 빈곤 가구의 경우, 여성과 노인 가구들의 빈곤 탈피가 다른 일반 가구들보다 상당히 느리며, 또한 시간에 따른 빈곤 탈피율의 변화도 상대적으로 더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처음으로 빈곤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 빈곤 가구들의 경우에도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주목되는 차이는 18개월까지의 기간동안은 일반 가구들이 여성과 노인 가구주 가구들보다 상당히 높은 빈곤 탈피의 비율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Rank는 빈곤 프로그램에 머물거나 탈피하는 것은 가구의 구성 형태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더욱 취약한 가구인 모자가정과 노인가정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한편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자료중 1968년부터 1982년까지의 자료를 기초로 여성 가구주의 빈곤 진입과 탈피를 조사한 Kniesner, McElroy 그리고 Wilcox의 연구<sup>16)</sup>는 빈곤 진입과 탈피 모두에서 인종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이들의 연구는 젊은 흑인 여성이 빈곤으로 진입할 확률은 백인 여성보다 4배가 높고, 빈곤에서 탈피할 확률은 백인의 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한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젊은 여성의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빈곤의 상태에 머물기는 하나 젊은 흑인 여성의 경우 3.8년을 머물러 백인 여성의 2.5년보다는 훨씬 긴 기간을 빈곤의 상태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들의 연구는 젊은 여성 가구주들에 있어서 흑인(31%) 보다는 백인(48%)의 경우에 있어 결혼이 빈곤 상태에서 탈피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밝힌다. Petersen의 연구<sup>17)</sup>는 교육의 정도(+), 고용의 상태(+), 6개월 이상의 노동 경험(+), 어린아이의 유무(-)가 AFDC 프로그램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빨리 탈피하는 것을 결정하는 요인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결혼 상태, 인종, AFDC 수당의 수준,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가진 경험의 유무 등은 탈피 기간을 결정하는 데 있어 별로 중요한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빈곤 탈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제공과 아울러 삶을 독립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적절한 노동 경험을 갖게 하는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국 오하이오 주의 애크론에 거주하는 18세에서 62세까지의 가구주 672명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공적 부조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되고 또 프

15) Rank, 전계서.

16) T. J. Kneisner, M. B. McElroy and S. P. Wilcox, "Getting into Poverty Without a Husband, and Getting Out, With or Without," *American Economic Review*, 78(2), 1988, pp. 86-95.

17) Carol Dawn Petesen, "Female-Headed Families on AFDC: Who Leaves Welfare Quickly and Who Doesn't," *Journal of Economic Issues*, 29(2), 1995, pp. 619-628.



로그램들로부터 탈피하게 되는가에 대한 요인들을 분석한 Leahy, Buss, Quane<sup>18)</sup>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가구 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빈곤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되기 쉬우며, 이들 여성들이 빈곤 프로그램의 수당보다 더 높은 수입을 제공하는 직장을 갖게 될 때 빈곤에서 탈피하게 된다는 것을 보고한다. 그리고 결혼한 부부의 경우에는, 가구주 배우자가 직장을 갖게 되는지의 여부가 빈곤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출을 가능하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모자가정은 일반 가정보다 훨씬 낮은 비율로 빈곤 프로그램에서 탈피하며 동시에 프로그램에 머무는 기간도 훨씬 길게 나타남을 보고하면서 Rank의 연구 함의처럼 이들 가정에 대한 특별 대책과 관심을 강조한다. 그러나 교육과 인종은 빈곤 탈피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요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이들의 연구는 Petersen의 연구 함의와 맥을 같이 하는데, 청소년 미혼모들에게 있어서 공적 부조 프로그램들은 안전망의 역할보다는 의존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청소년 미혼모들이 프로그램에 쉽게 접하고 오래 머물게 된다고 보면서 복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상의 방법은 이들이 가능한 한 빨리 일에 접하고 직장을 갖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Rowell은 1967년부터 1988년까지의 PSID 자료를 활용하여 최소한 5년 이상을 빈곤선 아래에 머무르는 지속적 빈곤의 특징을 갖는 1,647 가구들을 대상으로 가구주의 인종과 성에 따라서 어떻게 이들 가구의 빈곤 탈피가 다른 모습을 띠는가, 그리고 빈곤 탈피가 개인적인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는가 혹은 구조적인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는가를 생존분석의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했는데<sup>19)</sup> 그는 빈곤 탈피에 있어 인종적인 차이가 개인적인 요인들과 구조적인 요인들에 관련되어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한다. 즉 지역에서의 구직의 용이성, 임금의 수준 같은 구조적인 요인들에 의해 흑인과 백인의 빈곤 탈피율이 달리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는 Leahy, Buss와 Quane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고 Kniesner, McElroy 와 Wilcox의 연구와는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즉, 인종에 따라서 빈곤 탈피율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그녀의 연구는 고용 유무와 배우자 및 다른 가구원의 수입이 이들 빈곤 가구들의 빈곤 탈피에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여성 가구주가 남성 가구주들보다 빈곤에서의 탈피 가능성이 훨씬 어려운 것임을 확인하면서 Rank의 연구 그리고 Leahy, Buss와 Quane의 연구에서와 같이 모자 가정의 지속적 빈곤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1983년부터 1988년까지의 PSID 자료를 기초로 여성 가구주들이 AFDC 프로그

18) Peter J. Leahy, Terry F. Buss, and James M. Quane, "Time on Welfare: Why Do People Enter and Leave the System?"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54(1), 1995, pp. 33-46.

19) Katherine Renee Rowell, "An Examination of How Black Families and White Families Exit Persistent Poverty: Exploring the Importance of Individual and Structural Factors," Unpublished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1994.

램으로부터 탈피하였다가 다시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되는 요인을 분석한 Harris의 연구<sup>20)</sup>는 프로그램으로의 귀환과 관련된 요인의 분석을 통해 빈곤 탈피와 관련된 요인들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그녀의 연구에 의하면 빈곤 프로그램으로의 귀환은 상당히 일반적이며 이러한 귀환이 대부분 탈피 후 가까운 기간 안에 이루어짐을 보여주면서(1년 내에 25% 이상, 그리고 2년 내에 42%), 이러한 귀환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로서 나이(-), 도시 거주(+), 교육(-), 어린 자녀의 수(+), 등이 통계적으로 중요함을 보고한다. 그리고 AFDC 프로그램에 2년 이상 머물다가 탈피한 사람들이 2년 이하를 머물다가 탈피한 사람들보다 프로그램으로 귀환하게 될 가능성이 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직장을 갖고 있는 배우자와의 결혼이나 동거가 프로그램으로의 귀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직업을 통해 프로그램을 탈피한 여성 가구주들의 경우 프로그램으로부터 탈피 후 얼마 되지 않을수록(+), 나이가 적을수록(+), 그리고 결혼이나 동거를 하지 않을 때(+); 결혼을 통해 탈피한 여성 가구주들의 경우에는 탈피 후 얼마 되지 않을수록(+), 배우자나 동거자와 헤어질 때(+), 그리고 교육의 수준이 떨어질수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의 이유로 프로그램에서 탈피한 여성 가구주들의 경우에는 탈피 후 얼마 되지 않을수록(+), 지역의 실직율이 높을수록(+), 낮은 임금을 받을수록 프로그램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으로의 복귀 가능성을 줄이려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보다 포괄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빈곤 편모가정의 빈곤 탈피에 대한 AFDC 수당 수준의 영향력에 대해 연구한 Butler<sup>21)</sup>는 AFDC 수당 수준이 빈곤에 대한 정의(AFDC 수당 포함후와 제외후)에 따라서, 빈곤탈피의 방법(소득의 증대와 결혼)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적인 특징(나이와 직업 경력)에 따라서 다르게 빈곤 탈피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한다. 즉 높은 AFDC 수당 수준은 일반 빈곤 기준을 사용하였을 때 빈곤으로부터의 탈피를 더 빠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AFDC 수당을 제외시킨 후의 빈곤 기준을 사용하였을 때는 높은 수당을 받는 20세 미만의, 어린 나이에 단독 여성 가구주가 된 여성들의 빈곤 탈피에는 별다른 영향력이 없음을 보고한다. 또한 단독 여성 가구주가 되었을 당시 노동 경험이 없었던 여성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빈곤 탈피가 특별히 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Butler는 빈곤한 사람들을 돕는 데 있어서는 수당 수준만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가정의 아동들의 빈곤을 영속화시키지 않을 적절한 수당 수준과 함께 탁아와 교육 및 고용 기회의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활용되

20) Kathleen Mullan Harris, "Life after Welfare: Women, Work, and Repeat Dependenc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3), 1996, pp. 407-426.

21) Amy C. Butler, "The Effect of Welfare Benefit Levels on Poverty Among Single-Parent Families," *Social Problems*, 43(1), 1996, pp. 94-115.

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표 1> 빈곤탈피 관련 선행연구 요약표

연구자	사용된 자료	연구내용	분석방법
Boskin 외 (1975)	캘리포니아 주의 AFDC 수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빈곤 프로그램의 수혜 기간과 탈피</li> <li>주요 변인: 임금 수준 등 경제적 요인</li> </ul>	Two-state Markov chain transition prob-ability matrix
Rydell 외 (1974)	뉴욕 시의 AFDC 및 AFDC-U 수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대상의 상이성(point-in-time cohort/opening cohort)에 따른 빈곤 프로그램의 수혜기간과 탈피율</li> </ul>	생명표 분석 (life table analysis)
Huchens (1981)	미시건 대학의 PSID 자료내 AFDC 수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빈곤프로그램 수혜 및 탈피 결정요인</li> <li>주요 변인: 임금 등 경제적 요인, 가구 나이, 지역</li> </ul>	로지스틱 분석
Plotnick (1983)	Denver Income Maintenance Experiment 자료 내 AFDC를 수혜한 여성 가구주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느 한 시점(point-in-time)에서 본 빈곤 프로그램의 탈피 양태</li> <li>주요 변인: 나이, 임금 수준</li> </ul>	Event History Analysis
Rein 외 (1978)	1967~1973년 사이 한번 이상 공적 프로그램을 받은 여성 가구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빈곤 프로그램의 수혜 기간과 탈피율</li> </ul>	기술적 통계 분석
Bane & Ellwood (1986)	PSID자료 내 빈곤 프로그램 수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빈곤의 계기 및 탈피의 요인</li> <li>주요 변인: 가족구성원의 수입, 가구형태</li> </ul>	Event History Analysis
Rank (1995)	위스콘신 주의 컴퓨터 보고망 체계에 등록된 AFDC, Food Stamp, Medicaid 수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빈곤 프로그램 탈피 기간 및 가구 형태에 따른 빈곤 탈피의 특징</li> <li>주요 변인: 가구형태</li> </ul>	생명표 분석
Kniesner (1988)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자료 내 빈곤 여성 가구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빈곤의 진입과 탈피 요인</li> <li>주요 변인: 인종</li> </ul>	기술적 통계 분석
Leahy 외 (1995)	오하이오 주 애크론에 거주하는 18세~62세의 빈곤 가구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적 프로그램의 진입과 탈피 요인</li> <li>주요 변인: 가구 구조의 변화, 노동시장</li> </ul>	다중회귀분석
Petersen (1995)	AFDC를 수혜하는 여성 가구주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FDC의 수혜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li> <li>주요 변인: 교육, 고용, 노동경험</li> </ul>	Proportional Hazard Model
Rowell (1994)	PSID 자료 내 빈곤선 이하 기간이 5년 이상 되는 빈곤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구주의 인종·성에 따른 빈곤탈피 양태</li> <li>주요 변인: 교육, 고용, 노동경험</li> </ul>	Discrete 모델
Harris (1996)	PSID 자료 내 AFDC를 수혜하는 여성 가구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FDC 탈피 후 재수혜자가 되는 요인</li> <li>주요 변인: 나이, 도시거주여부, 교육, 어린 자녀의 수</li> </ul>	생명표 분석 discrete-time 모델
Butler (1996)	PSID 내 편부모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빈곤탈피 및 탈피 방법의 차이</li> <li>주요 변인: AFDC 수당 수준, 나이, 직업 경력</li> </ul>	생명표 분석 Discrete-time 모델

### III. 연구 방법

#### 연구자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 자료는 전국의 4개 지역을 중심으로 1995년 3월부터 4월까지, 자활보호 프로그램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가구주와 각 가구원의 일반 사항과 취업 및 소득 사항, 그리고 자활지원 프로그램 수급 사항을 추적 조사한 자료이다. 선정된 4개 지역은 서울 관악구, 대구 달서구, 전북 완주군, 그리고 경남 고성군으로서, 이들 지역에서 무작위로 동을 택한 뒤 선정된 동에서 1991년 전후에 자활보호 수급 가구였던 가구들을 추출, 추적 조사하였다. 선정된 가구의 수는 각 지역별로 72가구, 전체 267가구이며 조사된 전체 가구원의 수는 1,337명이다. 그러나 이 자료는 자활보호 대상자들뿐만 아니라 1991년을 기준으로 할 때 거택보호 및 의료부조 수혜 가구들도 일부 포함하고 있어 연구 대상의 동질성에 있어서는 다소의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거택보호 및 의료부조 수급가구 등을 제외한 228개의 자활보호 수급 가구들만을 선택하여 연구 자료를 재구성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이렇게 재구성된 자료의 지역적 분포는 서울 관악구가 52가구, 대구 달서구가 44가구, 전북 완주군이 70가구, 그리고 경남 고성군이 62가구로서 원래의 자료와는 다르게 지역별 가구 수에서 다소의 차이가 발생하여 어느 한 지역의 특징이 더 부각되거나 감춰질 수 있는 제한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동질적인 모집단을 다룬다는 측면에서는 보다 의미 있는 자료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활용되어질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해 수집된 일차 자료와는 달리 분석의 기본 단위를 1991년 기준의 가구주로 잡았으며, 각 가구에 속한 가구원들에 대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재구성하여 원래의 일차 자료로는 측정할 수 없었던 변수들도 포함시키고 있다. 이렇게 일차 자료의 변수들을 조작하여 만든 새로운 변수들을 활용함으로써 자활보호 대상자들의 자활과 관련된 여러 현상을 보다 다양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자료는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이차 자료(secondary data)가 갖는 전형적인 제한점, 즉 현상의 설명을 위해 연구자가 조사하기 원하는 다양한 변수들을 포괄시켜 연구할 수 없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 조사될 종속변수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로 관심을 두는 종속변수는 자활보호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 여부이다. 이 종속변수는 1995년까지 자활보

호 수혜자들이 프로그램에 잔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에서 탈피했는가에 따라서 측정되어진다. 잔류여부 변수는 만약에 1995년 이전에 자활보호프로그램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었으면 탈피한 것으로 코딩하고 1995년도 시점에서 여전히 프로그램에 남아있으면 프로그램 잔류로 코딩하여 측정되어진다. 두 번째 관심을 갖는 종속변수는 자활보호 수혜 가구들이 프로그램으로부터 탈피하는 비율이다. 이러한 탈피율은 프로그램에 잔류해온 기간을 기준으로 프로그램 잔류 시간의 변화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수급자들의 탈피율에 의해 측정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자활보호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여부와 관련하여 관심을 두는 독립변수는 프로그램 잔류기간, 가구의 형태, 가구주의 소득변화, 동거 배우자 및 자녀의 소득변화, 수급 프로그램의 종류, 지역, 동거하는 최연장 자녀의 나이, 가구의 부채, 가구주의 교육, 가구주의 노동능력 그리고 가구원의 수이다. 그리고 자활보호 탈피율과 관련하여 관심을 갖는 독립변수는 가구의 형태, 지역, 그리고 수급프로그램이다. 외국의 선행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지적된 빈곤 프로그램에서의 잔류 기간은 프로그램에서 탈피한 수급자들의 경우에는 자활보호 대상자들이 프로그램에서 탈피한 연도에서 프로그램의 수급을 시작한 연도를 뺀으로써 측정하고, 1995년 시점까지 프로그램에서 잔류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1995년에서 프로그램의 수급을 시작한 연도를 뺀으로써 측정한다. 이러한 측정 방법을 사용했을 때 수급이 1988년 이전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히 수급 기간이 측정될 수 없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들이 프로그램에서 탈피한 연도에서 혹은 여전히 잔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1995년에서 1988년을 뺀으로써 수급 기간을 측정한다. 가구의 형태는 거의 모든 가구가 일반가구와 모자가구로 대별되는 본 연구 자료의 특성을 참고하여 두 범주로 나누어 측정한다. 이러한 방식의 가구 형태의 측정은 자활보호 프로그램 탈피율의 분석에서도 그대로 활용되어진다. 한편 이 가구 형태 변수는 가구주의 성과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의 성 변수는 활용하지 않는다.

가구주의 소득 변화는 1995년 시점의 가구주의 소득에서 1991년 시점의 가구주의 소득을 뺀으로써 측정한다. 동거 배우자와 자녀의 소득 변화도 역시 1991년과 1995년 시점 모두에서 함께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난 배우자와 자녀들의 1995년 소득을 합한 총액에서 1991년 시점의 같은 대상들의 소득을 합한 총액을 뺀으로써 측정한다. 수급 프로그램의 종류는 자활보호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생업자금 융자, 직업훈련, 그리고 교육보호를 중심으로 두 개의 dummy 변수들을 활용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수급 프로그램의 첫 번째 dummy 변수는 생업자금 융자 수급 가구와 다른 두 프로그램 중의 하나를 수급하는 가구를 비교함으로써 측정하고 두 번째 수급 프로그램 dummy 변수는 교육보호 수급 가구와 다른 두 프로그램 중의 하나를 수급하는 가구를 비교함으로써 측정된다. 이러한 방식을 활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두 프로그램을 모두 수급하는 가구들을 누락시키게 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원래의 자료에 나타나 있는 세 프로그램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명확한 방법은 이러한 방식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한편 생명표 분석을 이용한 빈곤 프로그램 탈피율 변화 비교에 있어서 수급 프로그램 변수의 측정은 원래의 자료가 제공하는 대로 한 개의 프로그램만 활용하는 가구주들과 두 개의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가구주들을 있는 그대로 활용하여 측정되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비교를 가능케 한다.

한편 지역의 차이는 위에서 언급된 4개의 지역을 세 개의 dummy 변수들로 재구성하여 측정한다. 첫 번째 지역 dummy 변수는 서울 관악구의 자활보호 수급 가구와 다른 세 지역의 자활보호 수급가구를 비교함으로써 측정하고, 두 번째 지역 dummy 변수는 경북 고성군의 자활보호 수급 가구와 다른 세 지역의 자활보호 수급가구를 비교함으로써 측정하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역 dummy 변수는 대구 달서구의 자활보호 수급 가구와 다른 세 지역의 자활보호 수급가구를 비교함으로써 측정한다. 한편 자활보호 프로그램 탈피율의 분석에서는 지역의 차이 변수는 있는 그대로 4개의 지역을 활용하여 측정되어 진다. 동거하는 최연장 자녀의 나이는 본 연구 대상자들의 대부분이 프로그램의 수급자였던 1991년을 기준으로 가구주와 동거하는 자녀들 중 최연장 자녀의 나이를 중심으로 측정한다. 최연장 자녀의 나이 변수는 가구주의 나이와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의 나이 변수는 활용하지 않는다. 가구의 부채는 1991년도 시점에서 각 가구가 보고한 부채의 합을 통해 측정한다. 가구주의 교육 정도는 가구주가 1991년 시점에서 갖고 있던 학력을 중학교 이전까지의 교육 경험과 고등학교 이상까지의 교육 경험 등 2개의 범주로 나누어 측정한다. 가구주의 노동능력도 1991년도 시점에서 가구주가 보고한 노동 가능성의 정도(취업 가능과 취업 불가능)를 통해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가구원의 수는 1991년도 시점에서 함께 동거하는 가구원의 수로써 측정한다.

###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선 기술적인 통계분석을 통해 앞에서 언급한 변수들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 볼 것이다. 그후에 이 연구의 중심 주제인 자활보호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여부를 예측하는 요인들과 수급기간을 기초로 가구형태, 지역 및 수급 프로그램에 따른 자활보호 프로그램 탈피율의 변화 추이를 분석할 것인데 자활보호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여부를 예측하는 독립변수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방법을 사용하려고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생존분석 방법의 하나인 생명표 분석 방법(Life Table Analysis)을 활용하여 자활보호 수급기간에 기초

한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율을 대상으로 몇 가지 주요 변수들을 선택하여 각 변수의 범주들이 보이는 탈피율의 차이를 분석하려고 한다. 이 생명표 분석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사건 발생을, 즉 자활보호 프로그램의 수급기간을 기초로 각 기간에서의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율을 보여줌으로써, 이를 기초로 자활보호 수혜자들이 프로그램에 남아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누적 생존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자활보호 수혜자들이 프로그램에서 탈피하는 비율의 추이를 볼 수 있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어느 특정 변수의 범주들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는 탈피율 추이를 비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앞에서 언급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볼 수 없었던 빈곤 탈피와 관련된 다양한 역동적 측면을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한다.

### 연구 질문

외국에서의 선행 연구들의 결과들과 논의들을 기초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활보호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 여부와 탈피율 추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탐색적인 연구 질문들을 갖는다.

- 첫째. 우리나라 자활보호 수급자들의 프로그램 탈피 여부를 예측하는 요인들은 무엇이며, 그 중 보다 중요한 예측력을 갖는 것은 어떤 요인들인가?
- 둘째. 자활보호 수급자들의 가구 구성 형태에 따라서 자활보호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율의 추이는 달리 나타나고 있는가? 만약 달리 나타난다면 어떤 가구 구성 형태가 다른 모습의 탈피율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가?
- 셋째. 자활보호 수급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자활보호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율의 추이는 달리 나타나고 있는가? 만약 달리 나타난다면 어떤 지역에서 다른 모습의 탈피율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가?
- 넷째. 자활보호 수급자들이 받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활보호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율의 추이는 달리 나타나고 있는가? 만약 달리 나타난다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탈피율에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 IV. 자료 분석의 결과

### 1. 변수들의 특성에 관한 기술적인 분석

자활보호수급가구의 전체 사례수는 228명으로서 관련 변수들의 평균값 및 표

**자활보호가구의 자활보호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와 탈피율 분석**

준편차 등의 특징은 <표 2>에서 요약된 바와 같다. 프로그램 탈피에 있어서는 탈피자가 전체 사례 228명중 73.7%인 168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급기간의 평균은 3.72년이고 중간 값은 4년으로서 전체 대상자의 반 이상이 4년 정도 자활보호 프로그램에 잔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가구 형태에 있어서는 모자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자활보호 수급자들이 36가구로서 전체 사례의 16.1%이고 그 나머지는 일반가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소득 증가분과 동거하는 배우자 및 자녀의 소득 증가분의 평균은 각각 9.15만원과 33.44만원으로 나타났다. 수급 프로그램에서는 교육보호가 74가구, 생업자금 용자가 58가구, 직업훈련이 41가구, 교육보호와 직업훈련이 22가구, 그리

**<표 2> 변수들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

변수		표본수	비율 (%)
탈피	탈피자	168 명	73.7
	잔류자	60 명	26.3
	전체	228 명	100
평균 잔류기간	평균	3.72 년	
	중간값	4년	
	표준편차	1.28년	
가구형태	모자가구	36 가구	16.1
	일반가구	188 가구	83.9
	전체	224(4) 가구	100
수급 프로그램*	생업자금용자	58 가구	25.4
	교육보호	74 가구	32.5
	직업훈련	41 가구	18
	생업자금+교육보호	22 가구	9.6
	교육보호+직업훈련	27 가구	11.8
	생업자금+직업훈련	2 가구	0.9
	생업자금+직업훈련+교육보호	4 가구	1.8
	전체	228 가구	100
지역	서울시 관악구	52 가구	22.8
	대구시 달서구	44 가구	19.3
	전라북도 완주군	70 가구	30.7
	경상남도 고성군	62 가구	27.2
	전체	228 가구	100
가구주의 교육	중등교육 이하	165 명	73.7
	고등교육 이상	59 명	26.3
	전체	224(4) 명	100
노동능력	일반취업이 가능한 노동능력	175 명	78.1
	일반취업이 불가능한 노동능력	49 명	21.9
	전체	224(4) 명	100

주 : \* 평균 : 3.7년, 중간값 : 4년 임.

( ) 안은 누락된 자료수 임.



<표 2> 변수들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계속)

변수		표본수	비율 (%)
가구주 소득 증가	평균	9.2 만원	
	표준편차	28.3 만원	
배우자 및 자녀의 소득증가	평균	33.4 만원	
	표준편차	52 만원	
가구주의 나이	평균	51.4 세	
	표준편차	7.5 년	
가구주의 부채	평균	345.9 만원	
	표준편차	532.6 만원	
비동거 자녀를 제외한 가구원 수	평균	4.9 명	
	표준편차	1.5 명	
동거하는 최연장자녀의 나이	평균	23.1 세	
	표준편차	5.3 년	

주 : \* 평균 : 3.7년, 중간값 : 4년 임.  
 ( ) 안은 누락된 자료수 임.

고 생업자금 용자와 교육보호가 22가구로서 교육보호가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앞서도 밝혔듯이 본 연구의 자료는 원래의 일차 자료에서 각 지역의 자활가구만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 수가 각 지역에서 동일하게 구성되지 못하고 전북 완주와 경남 고성의 자활가구수가 더 많음을 나타내고 있다.

자활보호 수급 가구주의 특징으로 나이의 평균은 51.38세이고, 가구주가 보고한 부채의 평균은 345.93만원이며, 그들의 교육정도는 73.7%인 165명이 중등교육 이하이고, 노동 능력에 있어서는 78.1%인 175명이 일반 취업이 가능한 노동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1년을 기준으로 비동거 자녀를 제외한 전체 가구원 수의 평균은 4.9명이고 동거하는 최연장 자녀의 평균 나이는 23.1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자활보호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표 3>은 자활보호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 여부에 대해서 위에서 언급된 예측변수들의 로짓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미도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들의 Goodness-of-Fitness Chi-Square Test의 유의미도 결과 등을 정리한 것이다. 첫 번째 행은 14개 예측변수들이고, 두 번째 행은 14개 예측변수 모두에 기초한 모델(Full-Model)에서 얻어지는 회귀계수와 표준오차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행은 축소된 모델(Reduced-Model)의 회귀계수와 그 표준편차인데, 이는 14개 예측변수에 기초한 모델에서 회귀계수가 0과 큰 차이가 없는 예측변수들을 하나씩 제

**자활보호가구의 자활보호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와 탈피율 분석**

외시킨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변수들만을 최종적으로 갖게 만든 축소 모델로부터 얻어진 회귀계수와 표준오차이다. 탈피의 확률을 p로 정하고 로짓 p를  $\log\{e\}$  (탈피/(1-탈피))로 할 때, 축소된 모델에서 나타나는 4가지 예측변수들의 회귀계수는 다음과 같다.

$$\text{logit}(p) = \log\left\{\frac{e}{1-e}\right\} = 4.220 - 1.756(\text{프로그램 수급기간}) + 0.156(\text{동거하는 최연장자녀의 나이}) - 0.609(\text{경남 고성군}) - 0.742(\text{대구 달서구})$$

**<표 3>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표**

예측변수	Full-Model Coefficient (SE)		Reduced-Model Coefficient (SE)	
프로그램 수급 기간	-3.083	(0.710)***	-1.756	(0.304)***
가구 형태 (모자가구)	-0.589	(0.461)		
가구의 부채	0.000	(0.001)		
동거가구인수	-0.003	(0.264)		
가구의 소득 증가	0.026	(0.016)		
가구의 노동능력(취업가능)	0.258	(0.343)		
가구의 교육수준(중등이하)	-0.212	(0.505)		
동거 배우자 및 자녀에 의한 소득증가	0.008	(0.006)		
동거하는 최연장자녀의 나이	0.142	(0.069)*	0.156	(0.049)**
생업자금융자 프로그램	-0.047	(0.376)		
교육보호 프로그램	-0.168	(0.423)		
서울시 관악구	-1.170	(0.637)		
경상남도 고성군	-0.960	(0.440)*	-0.609	(0.242)*
대구시 달서구	-1.680	(0.717)*	-0.742	(0.281)**
Constant	8.160	(2.870)**	4.220	(1.524)**
n = 153			n = 216	
$\chi^2(14) = 99.43$			$\chi^2(4) = 106.46$ ,	
p < .0001			p < .0001	

주 : \* 은 P < 0.05, \*\* 은 P < 0.01, \*\*\* 은 P < 0.001임.

이 축소된 모델은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 여부를 예측하는 데 있어, 14개 예측변수 모두를 활용한 모델과 거의 동일하게 탈피여부가 예측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축소된 모델은 앞의 전체 모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10개의 예측변수들을 제외하기 때문에 전체 케이스에서 63개의 케이스를 더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자료를 더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두 모델 모두에서 자활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 여부를 예측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갖는

변수는 프로그램 수급기간과 1991년 기준에서 함께 동거하는 최연장 자녀의 나이, 그리고 지역으로서 경남 고성군과 대구 달서구로 나타났다.

먼저 잔류기간의 효과는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미국의 경험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잔류기간의 회귀계수를 해석하면, 프로그램에서 머무는 시간이 한 단위(년)가 늘어날 때마다 프로그램 탈피의 log odds가 -1.76만큼씩, 즉 odds가 0.173 배만큼씩 더 낮아지게 됨을 보인다. 즉 잔류기간이 한 단위 늘어날 때 한 단위 늘어난 잔류 기간을 갖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으로부터 탈피할 odds는 한 단위 늘어난 잔류 기간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의 17.3% 밖에 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의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된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서는 자활대상자 선정의 문제나 비효과적인 자활프로그램 등 정책적인 요인들이 지적될 수도 있고 프로그램 탈피를 어렵게 하는 사건들의 경험이나 자활의지의 부족 등 개인적인 요인들이 지적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보다 내실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1991년을 기준으로 함께 동거하는 최연장 자녀의 나이도 자활프로그램 탈피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예측 변수임을 나타낸다. 먼저 자녀 나이의 회귀계수의 의미를 해석하면, 한 단위(나이) 더 많은 최연장 자녀를 갖는 가구주들의 프로그램 탈피 log odds는 0.16이고 odds는 1.17로서, 이는 이들이 프로그램에서 탈피할 odds가 한 살 적은 최연장 자녀를 갖는 가구주의 odds보다 1.17배 더 높아지게 됨을 의미한다. 즉 최연장 자녀의 나이가 한 단위(나이) 더 많은 가구주들이 프로그램으로부터 탈피할 odds는 그렇지 않은 가구주들의 117%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자활보호 수급자의 선정 및 수급 중단 기준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본 연구 대상자들 중 프로그램 탈피자들의 61.6%인 98명은 탈피 이유로 생활형편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 않았으나 자녀의 성장이나 가구주의 건강 회복 등으로 노동 능력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다.

한편 경남 고성군과 대구 달서 지역의 변수도 자활프로그램 탈피 여부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미함을 나타낸다. 먼저 고성이 보이는 회귀계수의 의미를 해석하면, 고성에 거주하는 자활보호 수급자들이 타지역의 수급자들에 비해 프로그램에서 탈피할 log odds는 -0.61, 즉 odds가 0.54 배로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인다. 즉 고성의 수급자들이 프로그램에서 탈피할 odds는 타지역 수급자들의 54%밖에 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대구의 경우도 프로그램에서 탈피할 log odds는 -0.74로서, 즉 odds가 0.48 배로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인다. 다시 말해 프로그램 탈피의 odds가 타지역 수급자들의 48% 밖에 안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프로그램 탈피 여부를 예측할 때 나타나는 지역적

## 자활보호가구의 자활보호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와 탈피율 분석

차이에 대해서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간의 차이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이 측면에서 대구와 고성의 지역적 상반됨에 의해서 그같은 가능성은 기각한다. 그리고 위의 로짓회귀분석에서는 그 결과가 의미 있게 나오지 않았으나, 이들 두 지역의 공통적 특징으로 나타난 것은 모자가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대구: 30%, 고성: 25%). 연구자는 이 점에 주목하여 그 영향력을 조사해 보았으나, 각 지역에서 가구 형태와 프로그램 탈피의 관계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미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지역 모두에서 프로그램 잔류기간의 평균이 타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게(서울: 3.3년, 대구: 3.9년, 완주: 3.57년, 고성: 4.1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잔류기간과 연관된 지역 변수의 효과를 추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여하튼 지역과 관련된 이러한 결과는 지역이 갖는 어떤 특수한 성격에 의해서 지역 변수가 프로그램 탈피 여부에 중요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본다. 외국에서의 경우이기는 하나 앞의 선행 연구들은 빈곤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 여부를 예측하는 데 있어 지역의 경제적 특성 및 고용 구조 등과 같은 설명 변수들의 효과를 지적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변수의 효과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위의 연구 결과는 가구주의 교육이나 가구원의 소득 등의 변수가 미국에서는 상당히 유의미하게 나타났던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자활 지원 프로그램(생업자금 융자, 교육보호, 직업훈련등)의 효과도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 여부를 예측하는 데 있어 그렇게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자활보호 프로그램 수급자들의 프로그램 탈피 여부가 자활보호 가구들의 가구주 특성이나 국가의 원조 프로그램들 같은 요인들보다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예측되어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앞에서 보고된 최연장 자녀의 나이 변수의 중요성, 그리고 프로그램 탈피 이유에 대한 탈피자들의 견해가 이러한 해석의 가능성을 지지해 준다고 생각한다.

### 3. 자활보호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율에 대한 생명표 분석

앞에서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 여부를 예측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으로서 시간(수급기간)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는 프로그램 잔류율과 탈피율의 역동성을 보이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프로그램 잔류와 탈피의 역동적 추이를 분석할 수 있게 하는 생명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자활보호 수급자들의 프로그램 잔류 기간에 따른 프로그램 탈피율을 구하고 이를 자활보호 수급프로그램 변수와 가구 형태 변수 그리고 지역 변수의 범주들에 따라

서 비교 분석해 보려고 한다. 앞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가구 형태 변수가 프로그램 탈피 여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이를 생명표 분석에서 활용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도 빈곤 모자 가구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모자가구의 빈곤 진입과 잔류 및 탈피의 모습이 일반 가구의 모습과는 다를 수 있다는 외국 선행 연구의 보고들이 우리에게도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활보호 수급프로그램 변수 또한 로지스틱 변수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생명표 분석에서는 중요 변수로 선택하였다. 왜냐하면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생업자금, 교육보호, 직업훈련과 이 프로그램들의 다양한 조합(직업훈련+교육보호, 직업훈련+생업자금융자, 생업자금융자+교육보호)을 모두 이용할 수 없었던 제한점과는 달리 생명표 분석에서는 그러한 제한점이 모두 극복되어진다는 점 때문이다. 그리고 자활보호 수급프로그램 변수를 선택하는 또다른 이유는 우리나라 자활보호 정책에서 이 프로그램들이 지니는 중요성과 그 비중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변수의 경우에는 앞의 분석에서 검증된 프로그램 탈피에 대한 지역적 차이에 대해서 4 지역 모두를 활용하여 각 지역에서 달리 나타날 수 있는 빈곤 탈피의 역동적 추이를 보다 상세히 검증해 보기 위해서이다. 한편 생명표 분석을 활용하는데 있어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은 원래의 자료가 프로그램 잔류기간을 조사하는 데 있어 월단위 정도의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고 연 단위의 정보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수급기간을 보다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먼저 자활보호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프로그램 탈피율 추이는 <표 4>에 나타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가 실시된 1995년 시점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 여전히 프로그램에 남아 있어서 그들에 대한 정보가 단절된 수급자들(censored data)은 이 표에서 각 시기별로 괄호 안에 자활미정자 수로 나타냈다. 즉 4년의 18명은 프로그램에 머문 기간이 4년 이상이 된 수급자들중 1995년을 기점으로 그때까지 프로그램에 잔류하고 있어 더 이상의 자활여부에 대한 정보가 단절된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Exit은 프로그램에서 탈피한 숫자를 의미하는데, 2년의 Exit 52명은 자활보호 프로그램에서 2년 이상 잔류한 수급자들 중에서 2년내에 프로그램에서 탈피한 수가 52명임을 의미한다. 한편 프로그램의 탈피율은 각 시기에 탈피에 노출되어진 수급자들(population at risk)을 각 기간내 프로그램 탈피자 수로 나눔으로써 얻게 된다. 여기에서 탈피에 노출된 수급자들의 수는 각 시기의 전체 수급자들 중에서 정보가 단절된 사람들의 수와 그들의 프로그램 잔류 가능성에 대한 계산을 기초로 얻어진다. 이러한 계산을 기초로 한 자활보호 프로그램 수급자들의 프로그램 탈피율을 보면, 프로그램 수급자들 중에서 수급기간 1년 미만에 프로그램으로부터 탈피하는 비율은 0이나 수급기간 2년내에 탈피하는 비율부터 5년내에 탈피하는 비율은 점차적으로 높아짐을 보인다. 이렇게 수급기간 2년내부터 5년내까지 프

## 자활보호가구의 자활보호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와 탈피율 분석

로그래프 탈피율이 점증한다는 것은 이 기간동안에는 수급기간의 변화에 따라 탈피에 노출된 수급자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프로그램에서 탈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프로그램의 누적 생존율을 통해 더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 자활보호 프로그램 수급자들의 누적 생존율은 전체 수급자들 중의 76%가 2년보다 더 오랜 기간동안 자활보호 프로그램에 잔류하게 되고, 56.8%가 3년보다 더 오랜 기간동안 프로그램에 잔류하게 되고, 38.2%가 4년보다 더 오랜 기간동안 프로그램에 잔류하게 되며, 11.8%가 6년보다 더 오랜 기간동안 프로그램에 잔류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즉 자활보호 수급자들 중 탈피에 노출되어진 수급자들의 50%가 프로그램으로부터 탈피하는 데는 4년 정도가 걸린다는 것을 이 누적 생존율은 나타내고 있다.

<표 4> 자활보호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율과 누적 생존율

Yearly Interval	Number:		Proportion of:	
	At Risk	Of Exit	Exits	Cumul Survival
1	220	0	.0000	1.0000
2	220	52	.2364	.7636
3	168	43	.2560	.5682
4	116 (18)	38	.3276	.3821
5	52.5 (33)	25	.4762	.2001
6	8.5 ( 5)	1	.1176	.1766
7	3 ( 4)	1	.3333	.1177

주 : ( )안은 censored(자활미정자) 수입.

<표 5>는 가구 형태에 따른 자활보호 대상자들의 프로그램 탈피율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모자가구와 일반가구의 프로그램 탈피율을 비교해 보면 모든 수급기간에서 모자가구의 탈피율이 상당히 더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모자가구의 경우 수급기간이 6년이상 된 경우와 7년 이상된 경우에는 탈피율이 0으로서 탈피에 노출된 수급자들 중에서 더 이상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각 수급기간에서의 탈피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누적 생존율의 변화도 일반가구에 비해서 상당히 미미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자가구와 일반가구의 누적 생존율을 보면, 모자 가구의 경우 프로그램 수급기간 5년 후에도 프로그램에 잔류하는 수급자들이 34.6%나 되고 이같은 비중이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임에 반해, 일반가구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수급기간 6년후에 프로그램에 잔류하는 수급자들은 13.7%이고 7년후에도 프로그램에 잔류하는 수급자들은 단지 6.8%밖에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누적 생존율 추이의 차이는 아래 <그림 1>의 가구 형태별 생존 그래프에 잘 나타나고 있다.

<표 5> 가구형태에 따른 자활보호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율과 누적 생존율

Yearly Interval	Number:		Proportion of:	
	At Risk	Of Exit	Exits	Cumul Survival
<b>모자 가구</b>				
1	33	0	.0000	1.0000
2	33	5	.1515	.8485
3	28	4	.1429	.7273
4	21 ( 6)	6	.2857	.5195
5	9 ( 6)	3	.3333	.3463
6	2.5 ( 1)	0	.0000	.3463
7	1	0	.0000	.3463
<b>일반 가구</b>				
1	183	0	.0000	1.0000
2	183	47	.2568	.7432
3	136	39	.2868	.5301
4	91.5 (11)	32	.3497	.3447
5	42 (24)	22	.5238	.1641
6	6 ( 4)	1	.1667	.1368
7	2 ( 2)	1	.5000	.06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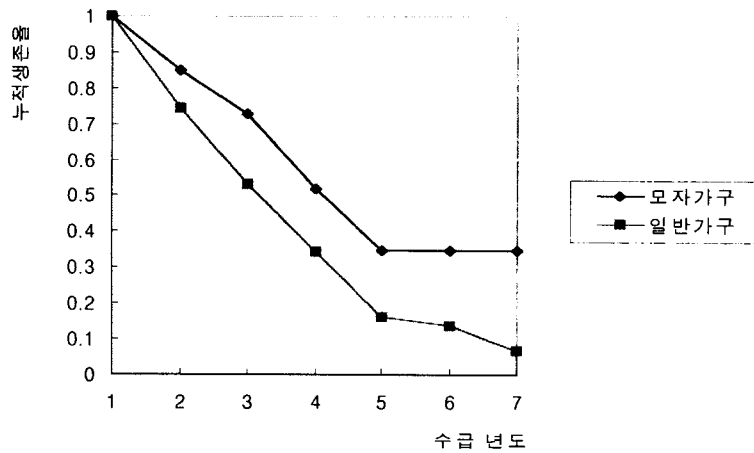
주 : ( )안은 censored(자활미정자) 수입.

한편 <표 6>은 모자가구와 일반가구의 생존율 분포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Wilcoxon 테스트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이 테스트에서 평균값은 케이스 모두를 각 케이스와 비교하여 그 케이스의 생존시간이 어느 한 케이스의 생존시간보다 더 길면 1을 가산하고 짧으면 1을 감하여 평균을 내서 얻게 되는 수치이다. 아래 <표 6>은 이런 방법을 사용해 모자가구와 일반가구를 비교한 것인데 자활보호수급자들 중 모자가구 수급자들이 프로그램에 남아 있는 생존기간이 평균적으로 더 길게 나타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구별 탈피율과 누적 생존율의 결과들은 앞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서도 나타내기 어려운 현상, 즉 상대적으로 프로그램에 오래 머물면서 미미하고 완만한 프로그램 탈피율의 추이를 나타내는 모자가구의 특성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빈곤 모자가구에 대한 연구의 증대와 정책적인 배려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표 6> WILCOXON 테스트에 의한 생존경험 비교표 : 가구형태별

	전체 수	자활자 수	자활미정자 수	미정자료 비율(%)	평균값
모자 가구	33	18	15	45.5	44.8
일반 가구	183	142	41	22.4	-8.1

주: P < 0.05 임.



<그림 1> 가구형태별 누적생존율 그래프

한편 지역별 자활보호 수급자들의 프로그램 탈피율의 추이를 나타내는 <표 7>은 앞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보고했던 결과들을 보다 상세히 보여준다. 즉 대구 달서구와 경남 고성군에서의 프로그램 수급자들의 탈피율이 서울 관악구와 전북 완주군에 비해 모든 수급기간에서 상당히 더 낮게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프로그램 탈피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기 때문에 수급 기간중의 누적 생존율 변화도 서울 관악과 전북 완주에 비해 대구 달서와 경남 고성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미미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활보호 프로그램 수급기간 2년후에 프로그램에 잔류하는 수급자들의 비율이 서울의 경우에는 67% 그리고 전북의 경우에는 71%임에 반하여, 대구의 경우에는 81% 그리고 경남의 경우에는 87%로서 대구와 경남에서 탈피율이 초기부터 낮게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프로그램 수급기간 3년후에 프로그램에 잔류하는 수급자들의 비율 역시 서울의 경우에는 37% 그리고 전북의 경우에는 55%임에 반하여, 대구의 경우에는 62% 그리고 경남의 경우에는 73%로서 같은 양상이 지속됨을 나타낸다. 그리고 수급기간 5년후에도 프로그램에 잔류하는 수급자들의 비율이 서울의 경우에는 16%에서 변화 없



이 지속되고 전북의 경우에는 8.5%에서 끝나고 있음에 반해, 대구 달서의 경우에는 36.4% 그리고 경남 고성의 경우에는 29.4%에 이르고 있음을 나타내면서 대구와 경남에서의 탈피율의 진행이 상대적으로 늦음을 보인다. 지역에 따른 이러한 누적 생존율의 변화 모습은 아래 <그림 2>의 지역별 생존 그래프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이 그래프는 프로그램 거의 대부분의 수급 기간중 서울과 전북의 프로그램 탈피율이 현저하게 더 높아서 누적 생존율의 변화가 훨씬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각 수급기간에서의 누적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표 8>과 <표 9>는 생존율 추이가 각 지역에 따라 매우 다르다는 것을 Wilcoxon 테스트를 통해 나타낸 것이다. <표 8>은 대구 달서와 경남 고성 지역의 자활보호 수급자들이 프로그램에 남아 있는 생존기간이 평균적으로 더 길게 나타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표 9>는 지역별 생존율의 추이를 각 쌍별로 Wilcoxon 테스트를 통해 검증해 볼 때, 이들 네 지역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지역은 서울 관악과 대구 달서, 서울 관악과 경남 고성, 그리고 전북 완주와 경남 고성임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표 10>은 자활보호 수급프로그램에 따른 수급자들의 프로그램 탈피율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표는 앞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서 나타내기 어려운 현상, 즉 수급하는 프로그램들에 따라서 탈피율의 추이가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가 하는 프로그램 효과의 역동성을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탈피율 측면에서는, 직업훈련의 탈피율이 다른 프로그램들과 비교해 볼 때 모든 수급기간에서 지속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1995년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등 지금까지의 연구보고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탈피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간이 짧은 이유가 프로그램의 효과성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앞으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한편 수급기간 5년후에 프로그램에 잔류하는 수급자들의 비율을 그때까지의 누적 생존율을 통해 보면 그 순서가 교육보호+직업훈련(3.95%), 직업훈련(10.5%), 교육보호(14.5%), 생업자금융자(24.4%) 그리고 생업자금융자+직업훈련(49.35%)의 순으로 나타나 자활보호에 있어서 직업훈련과 교육보호 그리고 이들의 조합이 프로그램 탈피와 관련해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가장 긴 수급기간을 갖고 동시에 가장 높은 누적 생존율을 보이는 것은 생업자금 융자와 생업자금융자+직업훈련으로서 수급기간 7년후에 이 두 프로그램의 누적 생존율은 24.37%와 23.69%이다. 자활보호의 프로그램들에 따른 이러한 누적 생존율의 변화 모습은 아래의 <그림 3> 수급 프로그램별 생존 그래프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이 그래프는 자활보호 수급자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중 수급자들의 자활보호 잔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프로그램은 교육보호 및 직업훈련 그리고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들 (교육보호, 교육보호+직업훈련)임을 나타내고, 잔류기간이 가장 긴 프로그

**자활보호기구의 자활보호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와 탈피율 분석**

램은 생업자금용자와 관련된 프로그램 (생업자금 용자, 생업자금 용자와 직업훈련) 임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직업훈련 및 교육보호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수급하는 사람들의 탈피율이 지속적으로 현저하게 더 높아서 누적 생존율에서의 변화가 훨씬 가파르게 진행되며, 따라서 최종 누적 생존율도 상대적으로 더 낮아 짐을 나타낸다.

**<표 7> 지역에 따른 자활보호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율과 누적 생존율**

Yearly Interval	Number:		Proportion of:	
	At Risk	Of Exit	Exits	Cumul Survival
<b>서울시 관악구</b>				
1	49	0	.0000	1.0000
2	49	16	.3265	.6735
3	33	16	.4848	.3469
4	17	6	.3529	.2245
5	7.5 ( 7)	2	.2667	.1646
6	1.5 ( 1)	0	.0000	.1646
7	.5 ( 1)	0	.0000	.1646
<b>대구시 달서구</b>				
1	42	0	.0000	1.0000
2	42	8	.1905	.8095
3	34	8	.2353	.6190
4	20.5 (11)	5	.2439	.4681
5	9 ( 2)	2	.2222	.3640
6	5.5 ( 1)	1	.1818	.2979
7	2.5 ( 3)	1	.4000	.1787
<b>전라북도 완주군</b>				
1	69	0	.0000	1.0000
2	69	20	.2899	.7101
3	49	11	.2245	.5507
4	37.5 ( 1)	15	.4000	.3304
5	17.5 ( 9)	13	.7429	.0850
<b>경상남도 고성군</b>				
1	60	0	.0000	1.0000
2	60	8	.1333	.8667
3	52	8	.1538	.7333
4	41 ( 6)	12	.2927	.5187
5	18.5 (15)	8	.4324	.2944
6	1.5 ( 3)	0	.0000	.2944

주 : ( )안은 censored(자활미정자) 수임.

<표 8> WILCOXON 테스트에 의한 생존경험 비교표 :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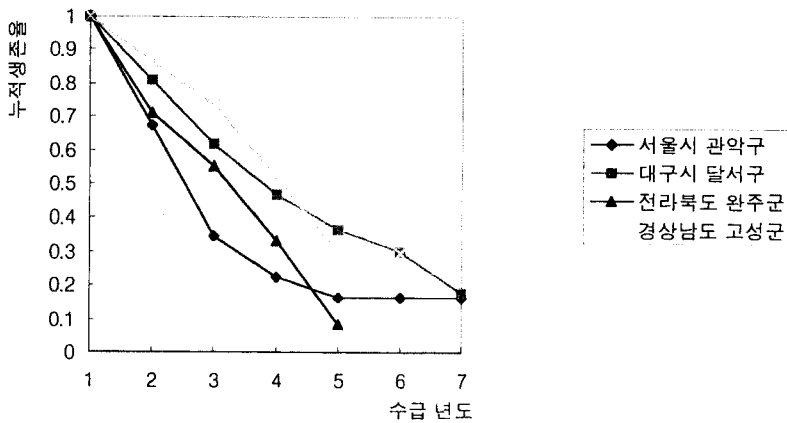
	전체 수	자활자 수	자활 미정자 수	미정자료 비율	평균값
서울시 관악구	49	40	9	18.4	-45
대구시 달서구	42	25	17	40.5	24.1
전라북도 완주군	69	59	10	14.5	-19.3
경상남도 고성군	60	36	24	40	42.1

주 : P < 0.001 임.

<표 9> WILCOXON 테스트에 의한 지역별 생존경험 일대일(1:1) 비교결과

	서울시 관악구	대구시 달서구	전라북도 완주군	경상남도 고성군
서울시 관악구				
대구시 달서구	**			
전라북도 완주군	***			
경상남도 고성군			**	

주 : \* 은 P < 0.05, \*\* 은 P < 0.01, \*\*\* 은 P < 0.001임.



<그림 2> 지역별 누적생존율 분석 그래프

<표 10> 수급프로그램에 따른 자활보호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율과 누적생존률

자활보호가구의 자활보호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와 탈피율 분석

Yearly Interval	Number:		Proportion of:	
	At Risk	Of Exit	Exits	Cumul Survival
<b>생업자금융자</b>				
1	55	0	.0000	1.0000
2	55	15	.2727	.7273
3	40	10	.2500	.5455
4	29.5 (1)	8	.2721	.3975
5	15.5 (11)	6	.3871	.2437
6	2.5 (3)	0	.0000	.2437
7	.5 (1)	0	.0000	.2437
<b>교육 보호</b>				
1	71	0	.0000	1.0000
2	71	16	.2254	.7746
3	55	16	.2909	.5493
4	36.5 (5)	14	.3836	.3386
5	14 (12)	8	.5714	.1451
<b>직업 훈련</b>				
1	40	0	.0000	1.0000
2	40	14	.3500	.6500
3	26	9	.3462	.4250
4	16.5 (1)	7	.4242	.2447
5	7 (4)	4	.5714	.1049
6	0.5 (1)	0	.0000	.1049
<b>생업자금융자 + 직업 훈련</b>				
1	21	0	.0000	1.0000
2	21	3	.1429	.8571
3	18	1	.0555	.8095
4	15.5 (3)	2	.1290	.7051
5	10 (4)	3	.3000	.4935
6	5 (0)	1	.2000	.3948
7	2.5 (3)	1	.4000	.2369
<b>교육 보호 + 직업 훈련</b>				
1	27	0	.0000	1.0000
2	27	3	.1111	.8889
3	24	6	.2500	.6667
4	15 (6)	7	.4667	.3556
5	4.5 (1)	4	.8889	.0395

주 : ( )안은 censored(자활미정자) 수입.

한편 <표 11>과 <표 12>는 각 프로그램에 따라 생존율의 추이가 상당히 다를  
을 Wilcoxon 테스트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표 11>은 각 프로그램의 생존율의 차  
이가 상당히 유의미하며 직업훈련 프로그램 수급자들의 생존기간이 가장 짧고 생  
업자금융자+직업훈련 프로그램 수급자들의 생존기간이 가장 길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표 12>는 프로그램 생존율 추이의 차이를 각 쌍별로 Wilcoxon

테스트를 통해 검증한 결과인데, 이들 5가지 형태의 프로그램들 중에서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프로그램들은 교육보호와 생업자금융자+직업훈련 그리고 직업훈련과 생업자금융자+직업훈련임을 보여준다. 즉 생업자금융자와 직업훈련을 동시에 받는 수급자들의 생존율 추이가 교육보호만을 혹은 직업훈련만을 받는 수급자들의 생존율 추이와 상당히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을 나타낸다. 그 다음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프로그램들은 직업훈련과 교육보호+직업훈련, 교육보호+직업훈련과 생업자금융자+직업훈련, 그리고 생업자금융자와 생업자금융자+직업훈련임을 나타낸다.

<표 11> WILCOXON 테스트에 의한 생존경험 비교표 : 수급프로그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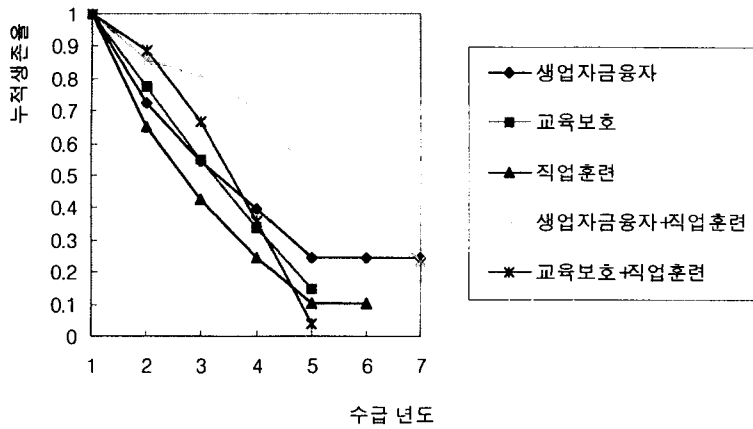
	전체 수	자활자 수	자활 미정자수	미정자료 비율	평균값
생업자금융자	55	39	16	29.1	-1
교육보호	71	54	17	23.9	-4.9
직업훈련	40	34	6	15	-39.4
생업자금융자 + 직업훈련	21	11	10	47.6	72.3
교육보호 + 직업훈련	27	20	7	25.9	17

주 : P < 0.05 임.

<표 12> WILCOXON 테스트에 의한 수급프로그램별 생존경험 일대일(1:1) 비교결과

	생업자금융자	교육보호	직업훈련	생업자금융자 + 직업훈련	교육보호 + 직업훈련
생업자금융자					
교육보호					
직업훈련					
생업자금융자 + 직업훈련	*	**	**		
교육보호 + 직업훈련			*	*	

주 : \* 은 P < 0.05, \*\* 은 P < 0.01 임.



<그림 3> 수급프로그램별 누적생존율 그래프

## V. 결론과 함의

지금까지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활보호 가구들의 자활보호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 여부를 예측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와 아울러서 프로그램 수급 기간에 따른 탈피율이 주요 변수들의 범주에 따라서 어떻게 달리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밝혀 보려 했다. 먼저 자활보호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 여부를 예측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예측변수는 프로그램 수급기간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에 더 오래 잔류할수록 탈피의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외국의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되는 것인데 앞으로 그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이러한 문제는 자활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우리의 정책적 혹은 재정적 현실이 지닌 문제나 비효과적인 자활보호 프로그램 등에 의해서 혹은 개인이 겪게 되는 특별히 어려운 상황의 지속이나 자활의지 부족 등 여러 문제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앞으로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두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하게 나타난 예측변수는, 1991년도 시점에서 가구주와 동거하는 최연장 자녀의 나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자활보호 프로그램의 탈피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은 가구원의 노동 가능성일 수도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실제로 프로그램 탈피자들중의 61.6%가 탈피 이유로 가구원의 노동 능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위의 추론

을 상당히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자활보호 수급자들의 탈피 여부를 예측하는 데 있어 중요한 마지막 변수들은 지역 변수인 대구 달서구와 경남 고성군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지역의 특수한 성격에 의해서 지역 변수가 자활보호 수급자들의 탈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우리나라 자활보호 수급자들의 프로그램 잔류 기간에 따른 프로그램 탈피율의 분석에서는 가구 형태 변수와 지역 변수 그리고 자활보호 수급프로그램 변수에 따라 탈피율과 누적 생존율의 역동적 추이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생명표 분석은 가구형태에 따라 프로그램의 탈피율과 누적 생존율이 상당히 달라짐을 보였다. 즉 모자 가구의 탈피율이 각 수급기간 내에서 일반가구보다 지속적으로 더 낮게 진행됨으로써 최종 누적 생존율에서도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모자 가구에 대한 연구 관심과 정책적인 배려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지역별 생명표 분석 역시 자활 프로그램 탈피율과 누적 생존율의 추이가 지역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는 탈피율과 누적 생존율에서 서울 관악구와 전북 완주군의 추이가 대구 달서구와 경남 고성군의 추이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결과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와도 일관되게 연결되는 것으로서 자활보호 프로그램에 있어서 지역적인 변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프로그램별 생명표 분석 또한, 자활 프로그램 탈피율 및 누적 생존율의 추이가 프로그램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직업 훈련 및 교육보호 그리고 이 두 프로그램 모두의 수급이 어느 다른 프로그램들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짧은 탈피 기간을 갖으면서 동시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탈피율과 더 낮은 누적 생존율을 갖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었다. 특히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서, 이것이 수급자 개인이 갖는 노동 의지와 관련된 효과인지 그렇지 않으면 직업훈련 프로그램 정책과 관련된 효과인지, 아니면 제3의 또다른 요인들에 의한 것인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활보호 프로그램들과 관련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상당히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앞으로 이러한 결과들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 이러한 결과들이 일반화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결과의 원인에 대해서 보다 많은 자료의 축적을 통해 그리고 보다 엄밀한 측정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하고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기존의 다른 빈곤 연구들이 초점을 두지 못했던 빈곤 프로그램 탈피와 잔류 현상에 연구의 초점을 두면서 흥미 있고 새로운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증되어야 하는 발견들을 다수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여러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고, 국내의 기존 빈곤 연구에서는 활용되지 않았던 분석 방법들을 소개하고 활용함(생존분석 중 생명표 분석)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빈곤 연구에 있어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다양한 분석틀들에 대한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 및 연구 방법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의 빈곤 프로그램에 대한 후속 연구들을 위해서 의미 있는 많은 연구과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여러 연구 과제들은 후속 연구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검증되어짐으로써 우리나라 빈곤 프로그램에서의 잔류 및 탈피 현상에 대한 이론화의 토대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빈곤 현상과 관련된 보다 의미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Panel이나 Cohort 자료의 축적을 통해 빈곤 관련 현상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기초해서 보다 의미 있고 적절한 정책적 개선을 만들어 내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